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청년,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등 경남 1만 인 이낙연 후보 지지 선언'에 참석해 참석자와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2일 서울 동작소방서를 찾아 사회 필수 인력인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 제공

“무안공항 ‘동북아 허브’ 공항 될 수 있을 것”

대선 예비후보에 듣는다

〈6〉 국민의힘 홍준표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는 “무안공항을 확장해 활성화되면 공항 주변에 반도체 집적 단지가 들어서면 당연히 지역 대학에서 인재를 확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무안공항은 인천공항과 함께 또 하나의 동북아 허브공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홍 후보는 23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통해 광주·전남의 하늘길을 열어 충청권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면서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는 3,800m 이상으로 확장을 고려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로잡아 정상 국기를 만들겠다”며 “정권교체를 위해선 유능한 선장이 필요했고 그 책임자가 저 홍준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 그는 “당이 가장 취약한 20~40대에서 강세고 호남 진보층 지지율이 높다고 역설했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대한민국 방향 바로 잡아 정상국가 만들겠다”

택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라며 “확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선 정국에서 분명히 이길 것이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제 삶의 원동력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고 ‘불의에 굴하지 않은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면서 “광주의 아픔을 이해하고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 싶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운명 가를 호남 대첩... 텃밭 혈투 승자는?

명 “될 사람 찍어달라”... 나 “불안한 후보”

투표율 저조... 전략적 표심 향배에 관심

경선 후유증 우려... ‘원팀’ 요구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쟁의 분수령이 될 호남 경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호남 민심은 매 선거 때마다 전략적 투표를 통해 지역 민심을 표심으로 나타냈다. 호남 민심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다.

특히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의혹이나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 승부수 등이 호남의 바닥 표심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전 포인트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의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순회경선의 투표율이 정작 예상보다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선에 직행하려는 이재명 경기지사나 ‘텃밭’ 호남에서의 지지를 토대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이낙연 전 대표는 투표율 추이에 따른 유희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1~22일 이틀간 진행된 광주·전남 지역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는 전체의 40.29%가 참여했다. 전북은 전날 1일차 투표율이 24.34%를 기록했다.

광주·전남·북은 전국 70만 권리당원 가운데 20여 만명의 권리당원이 있는 민주당의 텃밭이다. 호남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본선행을 직행할 것으로 기대돼 호남 경선은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호남이 텃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관심도가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전남 경선 결과는 오는 25일, 전북은 26일 각각 발표된다.

각 캠프는 저마다 ‘우세’를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 측은 “될 사람을 찍어달라”고 호남의 전략적 투표를 호소하고 있다. 이 지사 측의 한 의원은 “전남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근접하게 붙을 수 있지만, 광주에서는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본다”며 “전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확실하게 승리해 누적 과반 득표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불안한 후보 대신 돼야 할 사람을 찍어달라”며 안방 뒤집기에 공을 들였다. 지역 내에선 국회의원 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이 지사를 향한 ‘동정

론’도 감지된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전남은 이낙연 후보 우위로 돌아섰고, 전북도 차츰 ‘호남 동류의식’에 따라 동조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남에서 얼마나 크게 이 지사를 제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며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간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추진했던 개발사업이다. 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개인 사업자 7명이 투자금의 1,100배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은 것을 거론하며 ‘역대급 일확천금’이라고 공격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야당 인사들이 연루돼 있는 것을 부각시키며 맞섰다.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민간개발에서 공공개발로 전환시켜 야당 인사들의 대규모 게이트를 수포로 돌아가게 했다”며 반격했다.

대선 경선을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계의 표심 향방도 최대 변수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는 “정신잡기”를 위해 정 전 총리의 본거지 전북을 돌며 표심 구애를 이어갔다. 이 지사 캠프는 정 전 총리의 캠프에서 활동한 호남 인사들을 캠프로 영입했다. 이 전 대표도 전북에서 정 전 총리와 의 인연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두 후보 간 경선이 과열되면서 향후 후유증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경선 이후에는 원팀이 돼 민주당 정부 4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더 겸손하면서도 더 낮은 자세로 개혁과제 실현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평가 관계자는 “민주당 경선의 승부처인 호남 경선의 결과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결정에 분수령이 될 것이다”며 “정권 재창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이 과열로 인해 본선에서 악재로 작용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내달부터 전기요금 오른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 인상했다.

전기료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정부와 한전은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전분기(-3원)보다는 3.0원 오른 것이며, 지난해와는 같은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라면 전기료는 4분기에 매달 최대 1,050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뒤 1분기에 kWh당 3.0원 내렸다.

이후 2분기와 3분기에 물가 상승과 국민 경제 등을 고려해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동결했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 올린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연료비가 줄곤 상승세였음에도 전기료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더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전에 따르면 작년 3개월간(6~8월)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으로 kg당 평균 151.13원, LNG 가격은 601.54원, BC유는 574.40원으로 3분기 때보다 크게 올랐다.

이런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10.8원으로, 전분기(-3원)보다 13.8원 올라야 맞지만, 조정 폭은 3.0원으로 그쳤다.

이는 분기별 요금을 최대 kWh당 5원 범위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도록 상한 장치를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 오름에 따라 도시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을 비롯해 전반적인 물가가 들쭉날쭉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연료비 상승·한전 적자 고려
4인가구 월 최대 1,050원 ↑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연료비 연동제로 소비자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전은 당초 8시에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4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하려 했으나,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발표가 27분가량 늦어졌다. /연합뉴스



주말 & 신안 소액도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년

영광 모싯잎송편

먹을때가 제일 예뻐!